

근세 도서관사상을 펼친 가브리엘 노데



이 용 재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lyj5384@pusan.ac.kr



필자는 최근 『도서관인물 평전』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필자가 이 책을 펴낸 의도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나라 사서들과 문헌정보학 전공자에게 큰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이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한국 도서관들도 많이 성장하고 발전하였다. 박봉석 선생이 조선총독부도서관을 접수하고 새 나라의 국립도서관을 열고 이 땅의 도서관인들과 함께 조선도서관협회를 만든 이후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이제 이 땅에 2011년 기준으로 국립도서관 3개관, 공공도서관 786개관, 대학도서관 430개관, 학교도서관 11,506개관, 전문도서관 595개관 등 13,320개관의 도서관들이 존재한다.¹⁾

또한 같은 통계로 사서는 약 6천명에 이른다.

물론, 지금도 도서관과 사서의 수가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우리 국민이 전국 어디에 있던 골고루 양질의 도서관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 매년 거론되는 통계이지만, 2010년 기준 통계를 보면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공공도서관 수에서 꼴찌에 머무르고 있다.²⁾ 이처럼 우리 국민이 '도서관맛'을 골고루 보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질곡의 역사를 거치면서도 국내 도서관계와 사서직은 꾸준히 성장하여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1) 도서관통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www.lbst.go.kr/>) [인용 2013. 6. 17].

2) 김슬기, "공공도서관 수 OECD 중 꼴찌 ... 도서관을 미래 문화허브로", 매일경제 MK 뉴스(2013. 1. 29,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72570>), [인용 2013. 6. 17].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도서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서들은 자신의 직업에 자긍심을 느끼면서 일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또한 문헌정보학에 입문하여 학부,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하는 전공자들도 이 학문의 역사적·사회적 토대와 ‘도서관정신’을 이해하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도서관사상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가? 우리 사회에서 도서관과 사서직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서들과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은 언제나 이와 같은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자는 도서관을 가꾸고 사서 역할을 통하여 세상을 밝힌 인물들에 대한 책을 썼다. 이 땅의 사서와 문헌정보학도에게 도서관정신, 도서관철학, 도서관사상을 일목요연하게 알려주기가 쉽지 않기에, 도서관인물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였다. 다시 말해, 인류 역사를 통하여 잉태된 ‘도서관’을 찾아내고 키우고 동시대 사람들에게 선사한 도서관거인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들은 우리보다 앞서서 역사적·사회적 시련과 굴곡에서도 도서관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고, 과거의 기억을 보존하고 현재와 미래의 사람들을 위해 지식의 보고(知識의 寶庫)를 만들어내고 가꾼 사람들이다.

필자는 우리나라 사서와 문헌정보학도가 이러한 도서관인물들의 삶, 생각, 도서관운동, 발자취를 살펴보고나 따라가 보면 자연스럽게 각자의 일과 공부에서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나름대로 도서관운영과 봉사의 철학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정신을 우리 사회의 남녀노소와 나눌 때 도서관의 기반과 사서직의 가치는 빛날 것이다.

필자가 조명한 국내외 인물들 중에서 여기서는 근세 도서관과 도서관학을 개척한 가브리엘 노테(Gabriel Naudé)에 대해 소개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프랑스인이다. 프랑스라고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시민혁명이 있다. 바로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대혁명이다. 프랑스대혁명으로 근대정신이 열렸다. 중세 천년 동안 역사의 주인공은 소수 특권층이었지만, 프랑스대혁명으로 시민들이 역사의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런데 도서관 차원에서도 프랑스대혁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프랑스대혁명으로 인하여 그 이전까지 왕, 귀족, 성직자 등과 같은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던 책들이 왕실문고, 귀족문고, 수도원문고 등에서 풀려나 민중에게 개방되었다. 1789년 11월 입법의회에 의해 프랑스의 모든 교회도서관은 국유화되었으며, 그 후의 포고를 통하여 망명귀족의 장서도 몰수되었다. 몰수된 책과 필사본은 파리 시내의 각 곳에 설치된 문헌보관소(dépôt littéraire)에 보관되었다.³⁾

그런데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나기 162년 전에 도서관은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고 대중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책이 나왔다. 그것은 1627년에 나온 『도서관 설립을 위한 의견서(Advis Pour Dresser Une Bibliothèque: Présenté à Monseigneur le Président de Mesme)』이며, 저자는 근대적 의미의 도서관사상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가브리엘 노테(Gabriel Naudé)이다.

3) 정필모·오동근, 『도서관문화사』, 구미무역, 1991, 10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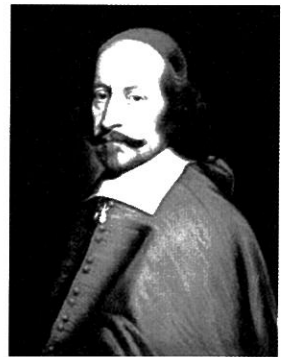
노데는 1600년에 파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하급 관리였고 어머니는 문맹이었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배움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였다. 대학에서 노데는 철학과 문법을 수학하였다. 그 뒤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파두아(Padua)에서 의학을 전공하였고, 파두아에서는 철학자 체사레 크레모니니(Cesare Cremonini)의 강의를 수강하였다. 의사가 되고자 했던 노데는 1622년 그의 스승 르네 모로(René Moreau)의 사망으로 의사의 길을 중단하고 파리로 돌아와 앙리 드 메스므(Henri de Mesme) 문고의 사서가 되었다. 이 문고는 8천권 정도의 책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노데는 이 문고를 학자들에게 개방함으로써 당시 가장 저명한 도서관의 하나로 만들었다. 이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노데는 『도서관 설립을 위한 의견서』를 생산하였다.⁴⁾

그 후 그는 로마로 건너가 그곳에서 10여 년을 지내며 두 개의 문고의 경영에 관여하였다. 1629년에 로마에서 바그니(Bagni) 추기경의 문고를 관리하는 사서가 되었다. 그리고 바그니 추기경이 1641년에 별세하자 바베리니(Barberini) 추기경의 사서가 되었다. 노데는 1642년 루이 13세의 재상인 리셀리외(Richelieu)의 초청을 받고 프랑스로 귀국하였다. 귀국 후 얼마 안 되어 리셀리외 재상은 사망하고, 이어 재상이 된 마자랭(Jules Mazarin)의 문고 경영을 맡아보게 되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 일하는 것만큼 신명나는 것은 없지 않을까? 마자랭과 노데는 여러 모로 의기투합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문고의 문을 소수의 특권층만이 아닌 식자층을 향해 열었다는 점에서 근대 도서관사상을 싹트게 하였다. 마자랭은 재상으로 취임한 이듬해인 1643년에 자신의 저택에 있는 서재와 그동안 수집해둔 책들을 ‘연구 목적을 위해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라는 슬로건 아래, 파리의 지식층에게 모두 공개하였다.⁵⁾

이후 10년 동안 마자랭 재상의 문고장으로서 노데는 유럽의 여러 지역으로부터 도서를 수집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그 결과 귀중한 장서로 구성된 도서관을 만들 수 있었다. 1642년에 노데가 문고장으로 취임할 당시 문고의 장서는 5천 권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 그가 영국, 폴란드, 독일, 이탈리아 등지를 여행하며 매우 적극적으로 자료수집에 공을 들인 결과, 1648년에는 장서가 4만여 권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이 도서관은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리왕립도서관과 비교될 만큼 호화로운 도서관으로 성장하였다.

도서관 장서를 구축하기 위한 노데의 수집벽은 대단하여, 그는 여행할 때마다 고물상이나 폐지상을 뒤지기도 하고, 때로는 ‘책 사냥꾼’이라는 악명을 감수하며 강압적인 수단을 쓰기도 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책들은 모두 도서관의 장서에 포함되었다.



▲ 마자랭 재상(출처: 위키백과)

4) "Gabriel Naudé", Wikipedia [인용 2013. 6. 17].

5) 최정태,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 한길사, 2006, 82쪽.



▲ 마자랭도서관 내부 (출처: 최정태,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 80~81쪽)



▲ 마자랭도서관의 정면(출처: 최정태,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 한길사, 2006, 83쪽)

이 대목에서 집고 넘어갈 것이 있다. 비록 그가 때때로 무리를 하면서 책을 수집하였지만, 그는 책은 개인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다. 노데는 수집한 책들을 일일이 모로코 제본(모로코 특산의 유피)으로 호화장정을 해서 책마다 마자랭 가문의 장서표로 황금 문장을 찍어 도서의 품격을 한층 높였다. 노데는 이에 그치지 않고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더욱 많은 책을 보유할 수 있도록 원형회랑과 벽을 둘러싼 서가 등을 고안해 도서관 설립을 위한 도면까지 설계하였다. 그러나 그의 위대함은 이러한 다재다능함보다는, 도서관은 반드시 공중에게 개방하여야 하고, 이용자는 장서에 직접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서 정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후대에 그를 기려, “위대한 사서가 없으면 위대한 도서관은 없다”는 문구가 생겨났다.⁶⁾

마자랭도서관의 장서가 프롱드의 난 때 흩어지자, 노데는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여왕(Queen Christina)의 초대를 받아 스톡홀름으로 갔지만 그곳에서는 그다지 보람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래서 마자랭이 산실된 장서를 모아 다시 도서관을 구성하자고 제안하자 노데는 즉시 이에 응하였다. 그러나 그의 건강이 악화되어 여행 중 1653년 7월 10일 프랑스 북부 아브빌(Abbeville)에서 별세하였다.

가상디(Pierre Gassendi)를 비롯한 프랑스의 여러 자유사상가들과도 친분을 가졌던 노데는 단순한 책벌레가 아니었다. 노데는 『도서관 설립을 위한 의견서』 외에 여러 저작을 생산하였는데, 그의 책들은 그를 학자이자 해학가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 비평정신을 보여주었다. 특히, 『도서관 설립을 위한 의견서』는 사서직에 대한 건실하고 자유로운 견해로 가득 차 있으며 도서관학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저작으로 볼 수 있다. 이 책은 노데가 27세 때 쓴 것으로 9장 100여 페이지 분량인데, 도서관 설립의 목적, 선서(選書), 수집방법, 도서관

6) 위의 책, 85쪽.

건축의 조건, 배가, 색인, 목록 등에 걸친 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의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어 가히 근대 도서관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첫 장에서 그는 “왜 도서관을 설립하여야 하는가?”라고 질문한 뒤 “위대한 도서관을 설립하고 그것을 대중과 공유하는 것보다 명예로운 일은 없다”고 답하였다. 노데는 도서관들은 지상 최고의 도서관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도서의 수집과 조직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도서관설립 희망자라면 이미 도서관을 만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다른 도서관의 목록을 연구하거나 복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⁷⁾

노데의 도서관 개념은 당시 시대상황으로서는 파격적이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기다리는 일이 없이 도서관에 입관할 수 있게 하고, 휴관일에도 관장의 소개장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고, 특별한 사람에게는 3주까지 관외대출도 할 수 있게 하는 등과 같은 의견들이다.

이 책에서 그는 도서선정에 대해 한 장 전체를 할애하였다. 그는 도서선정의 원칙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간주되는 저자들의 책은 우선적으로 수집하여야 하고, 각 저작을 저자의 언어로 기술된 원본으로 구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원작의 의미가 번역될 때 종종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하였다. 그는 어떠한 종류의 검열에도 강하게 반대하였으며, 주제와 관계없이 모든 책에는 독자가 있다고 믿었고, 정보는 무료로 제공되고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⁸⁾ 이러한 노데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그가 얼마나 좋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그의 도서관사상은 오늘날의 도서관에서도 책을 수집하고 구입하는 원칙으로 삼아도 손색이 없다.

또한 노데는 일찍이 도서관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주제별 목록을 알파벳순의 저자별 목록으로 정비하는 것까지 착안하였다.⁹⁾ 그는 “분류가 안 된 도서관은 조직이 안 된 군중과 같고, 훈련이 안 된 군대와 다르지 않다”라고 비유하면서 모든 주제를 12분야로 구분하는 독창적인 분류법을 개발하였다. 12분야는 신학, 의학, 서지, 연대기, 지리, 역사, 군사, 법률, 교회법규, 철학, 정치학, 문학이다.¹⁰⁾ 당시에는 책이란 매우 귀중한 것이어서 서가에 사슬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았고, 책의 사슬은 일부 도서관에서는 17세기까지 계속 존재하였으며 어떤 경우에는 18세기 말까지도 버텼다.¹¹⁾

노데의 동시대인으로 갈릴레오(Galileo Galilei), 데카르트(René Descartes), 홉스(Thomas Hobbes), 케플러(Johannes Kepler), 베이컨(Francis Bacon), 그로티우스(Hugo Grotius) 등과 같이 중세의 암흑을 타파하는 새로운 과학, 철학, 법학을 제시하는 지식인들이 있었다. 이처럼 ‘역사의 진보’를 향해 나아가는 지식인들의 전선에

7) “Gabriel Naudé”, Wikipedia [인용 2013. 6. 17].

8) “Gabriel Naudé”, Wikipedia [인용 2013. 6. 17].

9) 박상균, 『도서관학만 아는 사람은 도서관학도 모른다』,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2004, 62쪽.

10) 최정태, 앞의 책, 84쪽.

11) 헨리 페트로스키, 『서가에 꽂힌 책』, 정영목 역, 지호, 2001, 122쪽.

노데 또한 서 있었다. 청년 시절 의학을 전공한 노데는 의사가 되지 않고 사서로서의 길을 걸었으며, 근대 도서관사상의 문을 여는 도서관학자로서 역사의 지평을 넓혔다.

그의 도서관사상은 “책은 소수 특권층의 것이 아니라 대중을 위한 것이고, 장서는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고 분류되어야 하고, 도서관은 탐구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도서관은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저작들을 빠짐없이 수집하고 저작의 의미를 살려서 가급적 원어로 된 저작을 수집하여야 한다. 상층되는 견해를 담은 책들도 다양하게 수집하여 시대적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양질의 장서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도서관에는 도서에 대해 지식을 갖추고 학식이 있는 우수한 사서를 채용하여 장서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가 노데를 근현대 도서관사상의 시조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이러한 선구적인 사상을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중세의 암흑에 빛을 던지며 근대가 오도록 길을 닦은 사상가이며 그 사상을 도서관을 통해서 실현한 사서이다.

이처럼 노데의 도서관사상은 분명 시대를 앞선 것이었으며, 고대와 중세 동안 형성된 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었다. 이후 노데의 사상은 클레멘트(Claude Clément), 발루즈(Etienne Baluze), 듀리(John Dury), 벤틀리(Richard Bently) 등 후대의 많은 도서관사상가들에 의해 계승되었다. 현대 한국의 도서관경영과 서비스에서도 노데의 생각은 여전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노데에게서 찾고 계승해야 할 것은 도서관에서 동시대의 정신을 담아내며 편벽되지 않는 장서를 구성하고 많은 이가 이용하게 하여 사회의 건강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회의 의사’로서의 사서(司書, librarian) 역할이다. (☞)